군산시, 올해 기업유치 1조원 돌파

전기차·태양광 등 29개 기업과 투자협약…3675명 고용 창출
새만금 20곳 최다…군산2국가산단 6곳·군산국가산단 2곳 등

군산시의 기업유치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시는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통해 2019년 한 해 동안에 29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투자규모 1조169억원, 고용인원 3675명의 유치 효과를 거두었다고 2일 밝혔다.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전기자동차 분야가 명신, 에스앤케이모터스, 에디슨모터스 등 9개 기업으로 가장 많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는 테크윈에너지 등 3개 기업이다.

그 외 금속, 철강, 섬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투자를 약속했다.

특히 수상태양광, 차세대 건설기계 등의 연구 기반 구축을 위해 2개의 연구기관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명실공히 연구와 생산이 공존하는 첨단 산업의 중심도시로 큰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투자지역별로는 새만금산업단지가 20개로 투자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군산2국가산업단지가 6개, 군산국가산업단지 2개, 군산자유무역지역 1개 기업으로 파악되면서 새만금이 군산 지역산업 및 경제의 핵심이자 군산이 새만금의 중심임을 알 수 있었다.

명신, 해원엠에스씨 등 14개 기업이 입주계약, 착공 등 실제 투자를 진행하며 약속한 4651억원의 투자와 144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외 기업들도 차근차근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시는 새만금과 군산국가산업단지 일원에 전기자동차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첨단산업의 기반이 구축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이어가고 있어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투자를 결정해준 기업에게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이와 같은 기업들의 투자를 바탕으로 미래형 대체 산업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군산시는 지난 28일 투자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군산시 제공〉

구절초 테마공원 사계절 관광명소 육성
정읍시, 종합평가회…대체경관 조성 등 제기

정읍시는 구절초 테마공원을 사계절 관광명소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작업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구절초 테마공원의 관광 명소로의 육성을 위해 지난 28일 제2청사에서 '제14회 구절초 꽃축제 평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10월 5일부터 16일간 진행된 꽃축제에 대한 종합평가를 진행했다.

올해 축제에서는 새로 선보인 아스타, 바늘꽃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아름다운 경관 인프라 구축에 성공했다는 평이다.

이와 함께 정읍방문의 해를 맞이해 기획한 기념사진 제공 이벤트와 포토존 설치 등에도 호평이 이어졌다.

하지만 코스모스 개화 시기가 축제 기간과 맞지 않은 점과 판매장 음식의 질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축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대체경관 조성과 음식 위생, 서비스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종합적인 장기비전 구축과 축제 운영의 전문성을 위한 조직체계 정비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올 해 축제에서 아쉬운 점을 정확히 파악해 다음 축제에서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며 "구절초 테마공원의 사계절 관광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구절초 테마공원에서 축제를 즐기는 관광객들.

익산시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
엔에스 등 업체 3곳 선정 협약식

익산시는 '민간공원 조성사업' 대상으로 정한 도심 공원 3곳의 '민간 특례사업'을 맡을 업체 3곳을 선정하고 지난 29일 시청에서 협약식을 했다.

사업 대상은 마동·모인·수도산 공원이다.

업체들은 이들 공원 용지를 매입한 뒤 2022년까지 전체의 30% 이하 면적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부지에는 공원과 문화시설을 만들어 기부채납하게 된다.

일몰제로 도심 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만든 특례제도에 따른 것이다.

마동공원은 엔에스, 모인공원은 신동아종합건설, 수도산공원은 제일건설이 각각 맡아 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익산시는 지난 4월 소라공원의 사업 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선정했다.

익산시는 남은 3개 공원도 서둘러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시작하거나 직접 재원을 확보해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문화, 휴게, 조경이 어우러진 명품 테마공원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전국민 관심 끄는 '순창 소스송' 유튜브

순창군이 남녀노소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든 '순창 소스송'〈사진〉이 유튜브를 통해 전국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순창군에 따르면 이번 제작된 '순창 소스송'은 순창 소스를 주제로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소스 산업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제작됐다.

이 노래는 동요와 같은 음원과 노랫말로 아이들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제작됐다.

앞서 장류축제와 함께 열린 '2019 순창 세계발효소스박람회'에서 관내 댄스동아리와 박람회 서포터즈들을 통해 개막 퍼포먼스로 선보인 바 있다.

이 노래는 순창소스박람회 공식 유튜브 채널 또는 순창군 공식 유튜브인 '순창튜브'에서 만날 수 있다.

이와 관련 군은 미래 먹거리로 소스 산업에 역점을 두고 매년 자체 소스 개발에 몰두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기존 전통 장류산업을 토대로 소스 산업을 육성하고 국내외 소스 거점 지역으로 발돋움하고자 소스 개발, 세계발효소스박람회 개최, 발효 소스 토굴 운영 등 다양한 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내년에는 20·30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소스송을 제작해 순창 소스를 알리겠다"면서 "순창의 소스 산업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

전주동물원 새 마스코트 '수달' 선정

생태동물원을 지향하는 전주동물원의 새로운 마스코트로 멸종위기 동물인 수달〈사진〉이 선정됐다.

전주시는 지난 29일 전주동물원 잔디광장에서 동물원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BI(Brand Identity) 및 캐릭터 선포식을 열었다.

선포식에는 김승수 시장과 생태동물원 다울마당 위원, 어린이,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선포식은 하버드 유치원생들의 동요 및 율동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전주동물원장의 BI 및 캐릭터 개발 경과보고, 전주시장의 기념사, 주요 내빈들의 축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

동물원은 생태동물원으로 변화 중인 동물원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숲과 자연을 의미하는 녹색을 BI 상징색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글(동물원)과 영문(ZOO)으로 동시에 읽히도록 디자인해 전주동물원의 브랜드가치를 표현했다. 동물원의 대표 동물인 수달의 캐릭터 디자인도 공개됐다.

수달은 먹이사슬을 균형있게 조절해 주는 수환경지표종이다.

생태동물원을 지향하는 동물원의 정체성과 어울려 새로운 마스코트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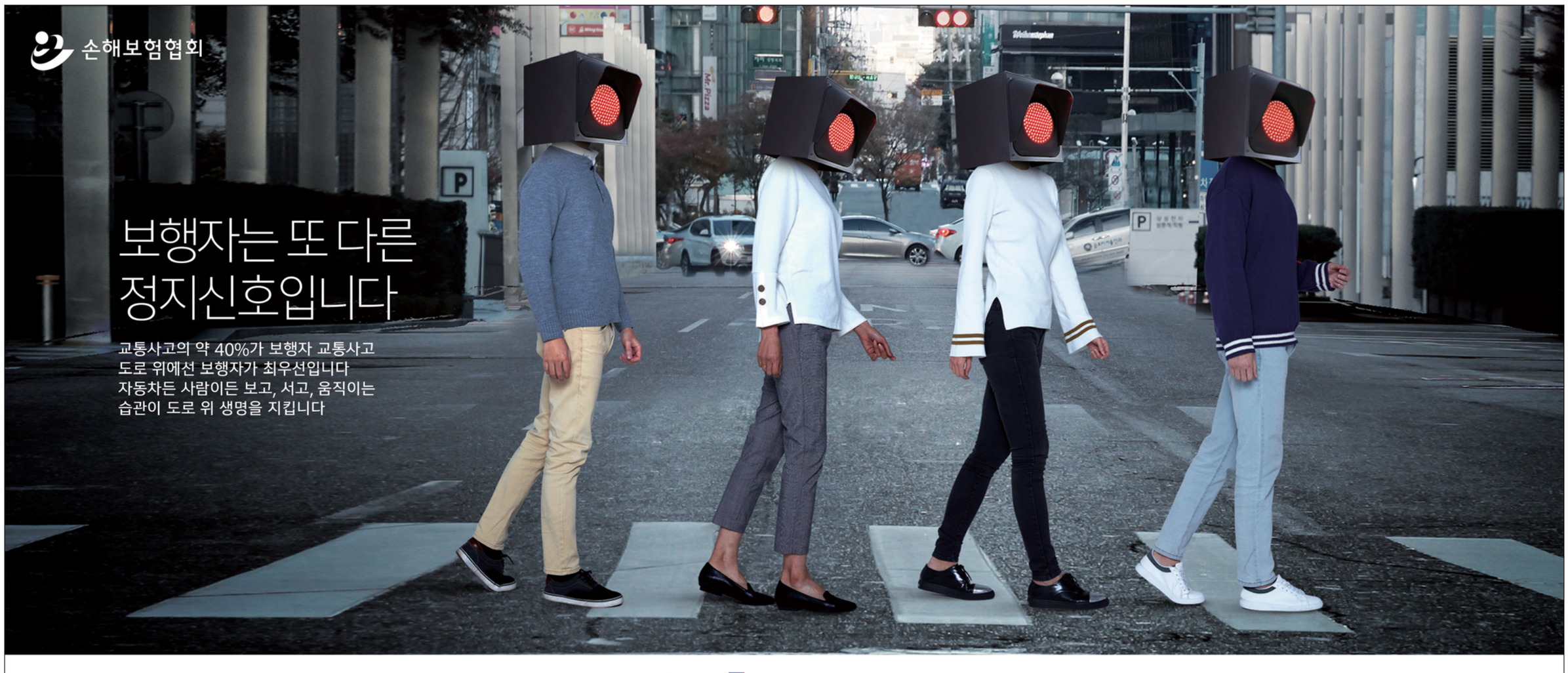
전주동물원에는 기증된 수달인 '수수'와 '달달'이가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군,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추진

고창군은 군민들의 다양한 독서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은 지역 내 활동중이거나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시낭독, 독서토론 모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책 읽는 도시' 붐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도서관은 동아리 모임공간을 마련해 주고, 책꾸러미를 대여해 책을 주제로 한 낭독, 토론, 함께읽기 등 안정적인 활동을 도울 계획이다.

독서동아리 등록은 5명 이상이 한 달에 1차례 이상 모임을 갖거나 계획 중인 모임이 해당되며 모임 후에 활동일지를 작성하면 된다.

등록 방법은 관련 신청서를 작성해 고창군립도서관 및 성호도서관을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